

초광각·망원 등 5개의 눈... 더 생생하고 깨끗해졌다

(펜타 카메라)

LG전자 'LG V40 씽큐' 공개

소비자 요구 철저 분석·반영
6.4인치 올레드 풀비전 적용
QHD+ 해상도로 컬러 생동감 ↑
16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지원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펜타(5개) 카메라를 장착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40 ThinQ(씽큐)'를 4일 공개했다.

V40 씽큐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5개의 카메라다. 카메라의 기본 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화각으로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황정환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장은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G V40 씽큐 개발팀은 최근 6개월간 수많은 온라인 댓글을 분석하고 사용자를 직접 만나 LG 스마트폰에 대한 목소리를 철저히 분석했다"며 "이들 제품에 반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후면에 표준, 초광각, 망원 등 3개의 렌즈를 탑재했다. 사용자가 움직일 필요 없



황정환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장

이 다양한 화각과 줌을 이용해 인물과 배경에 맞는 사진들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촬영 전 서로 다른 3개의 카메라로 비추는 장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트리플 프리뷰', 셔터 한 번이면 서로 다른 렌즈로 촬영한 연속 사진과 이 사진들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트리플 샷' 등 3개의 카메라를 조합한 쉽고 재미있는 기능도



LG전자가 4일 오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전략 스마트폰 LG V40 ThinQ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포함됐다.

왜곡을 줄인 107도 화각의 초광각 렌즈는 1600만 화소의 고해상도를 지원해 인물뿐 아니라 넓은 풍경도 깨끗하게 담는 것도 가능하다. 망원 렌즈는 멀리서도 원하는 피사체를 화질 손실 없이 담아내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연출한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 표준 렌즈와 500만 화소 광각 렌즈 2개의 카메라가 탑재됐다. 서로 다른 렌즈가 인물과 배경을 구분해내기 때문에 배경은 흐리게 하고 인물만 강조하는 아웃포커스 기능이 한결 깔끔해졌다.

카메라의 화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우선 후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픽셀은 전작인 LG V30 씽큐의 1μm(마이크로미터) 1.4μm로 약 40% 커졌다. 센서 픽셀은 이미지 센서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 렌즈를 통과한 빛을 센서 픽셀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다. 센서 픽셀이 받아들인 빛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 또한 0.38인치로, 전작 대비 18% 이상 키웠다.

조리가 깊은 스마트폰 중 가장 낮은 수준인 F1.5를 구현해 보다 많은 빛을 받아들여 어두운 곳에서 깨끗한 사진을 찍도록 한다.

카메라 외에도 V40 씽큐는 6.4인치 올레드 풀비전을 적용했다. 하단 베젤(테두리)을 5.7mm로 줄이고 전면 상하좌우 베젤의 두께를 갈게 했다. 또한 QHD+(3120×1440) 해상도로 약 450만개의 화소가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다. 새로운 화

질 엔진을 적용해 컬러의 생동감을 강조했다.

하이파이 쿼드 DAC 기반의 고해상도 오디오는 영국 명품 오디오 업체 메리디안과의 협업으로 품격을 높였다. 하이파이 쿼드 DAC은 음왜곡율을 수십만 분의 일 수준으로 줄여 원음에 가까운 깨끗한 소리를 구현한다. 여기에 메리디안의 음질 튜닝으로 최적의 밸런스를 갖췄다.

기존 스마트폰 대비 저음이 두 배 이상 풍부한 붐박스 스피커 기능도 향상됐다. 제품 상단 수신부 역할을 하는 리시버를 스피커처럼 활용해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한층 높였다.

LG전자는 4일부터 각 통신사 매장 수천 곳에 V40 씽큐의 진열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에 체험존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색상은 뉴플래티넘 그레이, 모로칸 블루, 카민 레드 등 3종으로 출시된다. 출시 날짜와 가격은 미정이다. 다만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작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V30(64GB)의 출고가가 94만9300원이었는데 이번 V40 씽큐는 카메라 렌즈가 2개나 더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구서용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넉넉한 공간에 뛰어난 연비 안전성 높여 '엄빠차'로 딱!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추석 연휴가 끝나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즌이 시작됐다.

가을 나들이에는 사람도 많이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주목받는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차량 구매시 미니밴을 고민한다. 운전이 미숙한 엄마를 고려한다면 '엄빠차'로 미니밴을 구입하는 건 부담스럽다.

그러나 최근 만난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는 넓은 시야각과 뛰어난 연비를 갖추고 있어 '엄빠차'로 제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 C4 피카소는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델이다. 올해 판매된 시트로엥의 35% 정도는 그랜드 C4 피카소가 책임졌다.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다. 유려한 유선형으로 완성된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과 유니크한 외모로 활기차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갖췄다. LED 주간등과 차체 바깥쪽으로 확장된 더블 쉼블론은 시트로엥만의 미래지향적인 스타일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며, 브랜드 특유의 패밀리룩을 완성한다.

실내 공간은 겉모습과 달리 넉넉하

다. 실제로도 공간성이 뛰어나지만 넓은 시야 덕분에 훨씬 넓어 보인다. 앞창이 앞으로 누운 덕분에 A필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쿼터 글래스를 집어 넣었다.

여의도를 출발해 충남 보령 무창포를 왕복 주행한 결과 주행성능은 만족스러웠다. 최고 출력 120마력과 30.6kg·m의 토크를 내는 1.6L 블루HDI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여기에 6단 자동변속기(EAT6)를 채택해 부드러운 출력 전달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보조 기능도 대거 적용했다.

그랜드 C4 피카소는 유로 NCAP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탑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 안전성을 대폭 향상했다. 특히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차선을 유지하면서 너무 깊게 개입하지 않아 안전하게 주행을 도왔다.

C4 피카소는 14.2km/L의 복합 공인 연비와 각각 13.2km/L와 15.6km/L에 이르는 도심 및 고속 연비를 갖추고 있지만 연비는 실제 주행에서 더 높게 나왔다. 시승한 결과 패밀리 밴 구매를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다. 가격은 1.6L 디젤 3990만~4270만원, 2.0L 디젤 4990만원으로 착한 편이다.

/양성운 기자 ysw@

대우전자, 멕시코서 'K-Pop 파티'

한류 문화체험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대우전자가 지난 9월 30일 멕시코 시티에서 'K-Pop 파티'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중심가인 레포르마 거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커버댄스 공연, 강남스타일 댄스 컨테스트,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서예 및 한복 체험 이벤트 등 한류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전 9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주최 측 예상의 5배가 넘는 1만여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멕시코 현지 한류 팬들이 좋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대기했다.

대우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멕시코

시장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했다. 대우전자와 대우위니아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마이크로 버블 세탁기, 더 클래식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대우전자 주요제품과 계열사인 대우위니아 스포워셔(포터블 자연가습청정기), 위니아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행사를 참석한 관람객에게는 모자, 핸드폰용 스마트 링을 제공했다. 제품 홍보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는 추천 이벤트를 통해 대우전자 전자레인지 30대, 대우위니아 스포워셔(포터블 자연가습청정기) 100대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지난 9월 30일 멕시코시티 레포르마 거리에서 진행된 대우전자 'K-Pop 파티'에서 K-Pop 커버댄스 공연을 지켜보는 관람객들. /대우전자

두산인프라코어, 유럽 엔진시장 진출

伊 아르보스와 LOI 체결
6년간 G2엔진 2.7만대 공급

두산인프라코어가 유럽 농기계용 엔진 시장에 진출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이탈리아 트랙터 생산업체 아르보스(ARBOS)와 디젤 엔진 개발 및 공급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유럽엔진인증 V' 배기규제를 충족하는 1.8~3.4L 급 G2엔진을 농기계용으로 개발해 2020년부터 6년간 아르보스에 2만7000여 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건설기계와 지게차 등에 쓰이는 친환경 고효율 제품인 G2 엔진을 판매해 왔다. 이번 LOI 체결을 통해 산업용뿐 아니라 농업용까지 유럽의 엔진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갖추며 사업 확장



아르보스그룹 선 양 회장과 두산인프라코어 유준호 엔진BG장, 아르보스 CEO 안드레아 베도스티(왼쪽부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유준호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장(부사장)은 "북미와 유럽 소형 건설장비 시장 점유율 1위 밥캣과 세계 2위 지게차 업체인 독일의 키온 등에 이어 세계적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일류업체와 전략적 파트너를 맺음으로써 엔진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B '옥수수'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에서 '2018 MLB(메이저 리그 야구) 포스트시즌'을 5일부터 생중계한다고 4일 밝혔다.

옥수수 측은 "류현진 선수가 가을야구 진출이 달린 정규시즌 막바지에 예전 전성기 기량을 발휘하고 호투를 펼쳐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LA다저스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며 "류현진 선수의 4년만의 포스트시즌 엔트리 입성에 따른 MLB에 대한 높은 관심에 '2018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사 중 단독으로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를 제공한다.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옥수수 애플리케이션(앱)과 PC에서 회원가입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김민인 기자 silkni@